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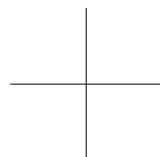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송 혜 진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송 혜 진

# 인 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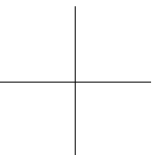
송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에서의 초기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만 2세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A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어머니용 질문지,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을 측정하는 교사용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대사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이 초기적응에 있어서 자아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요인 중 접근-회피기질은 초기적응의 또래관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영아의 기질요인 중 반응강도는 초기적응의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자아강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질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은 놀이성의 신체적자발성과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요인중 반응역은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성 전체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면, 영아의 초기적응은 전체 놀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적응의 하위변인별로 놀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초기적응 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은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또래관계는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자아강도는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적응 요인 중 일과적응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긍정적 감정과 자아강도, 일과적응 요인은 놀이성 전체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5
<b>II. 이론적 배경</b> .....	7
1. 기질의 개념과 유형 .....	7
2. 초기기관적응 .....	13
1) 영·유아의 초기기관적응 .....	13
2) 기질과 초기적응 .....	16
3. 놀이성 .....	19
1) 영·유아의 놀이성 .....	19
2) 기질과 놀이성 .....	22
<b>III. 연구방법</b> .....	26
1. 연구대상 .....	26
2. 연구도구 .....	28
3. 연구절차 .....	32
4. 자료분석 .....	33
<b>IV. 결과 및 해석</b> .....	34

1.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 .....	34
2.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 .....	35
3.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 .....	36
<b>V. 논의 및 결론</b> .....	39
1. 논의 .....	39
2. 결론 및 제언 .....	42
<b>참고문헌</b> .....	45
<b>부록</b> .....	52
<b>ABSTRACT</b> .....	5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비슷한 양육조건에서 성장하여도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개인차는 태내기에 이미 감지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이며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기본적인 선천적 경향성으로 인식되는 기질에서 찾을 수 있다(천희영, 1993).

영아의 기질은 영아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행동양식으로 표현된다. 기질은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환경의 기대, 요구 등이 영아의 능력, 동기, 행동양식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기질의 이러한 역동적인 측면 때문에 최근에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들에 있어서 기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은영, 2000). 지금까지 영아의 기질과 환경변인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가정환경변인에 관한 연구들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지, 2000).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영아들도 가정 밖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의 집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990년 48,000명에서 2000년에는 682,842명으로 십년사이에 약 14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3세미만의 영아는 145,042명으로 21.25%를 차지한다(서문희 · 이상현 · 임유경, 2000). 이러한 상황은 아주 어린 시기인 영아기에서부터 영아들이

어머니와 매일 격리되며,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영아는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서 매일같이 양육자와 헤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며, 처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낯설은 영아들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적응상의 곤란은 영아가 적응하는 특정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생활이후 학교생활에 있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영아들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전인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적응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과정은 영아가 처음 등원할 때 양육자와는 헤어짐을, 교사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일상을 중심으로 영아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헤어지도록 도와주며, 점차 물리적인 환경이나 하루일과 등에 적응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초기적응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Lieberman(1965)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영아의 기질, 연령, 건강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와 영아 간의 애착의 질, 부모의 직업 만족도 등과 같은 부모의 특성, 보육교사의 특성 및 환경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Zajdeman과 Minnes(1991)은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이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진아(2004)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 중 반응강도가 초기기관적응에 있어서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그 설명력 또한 20.8%, 25.4%라고 밝히고 있다. 전미경(2003)

의 연구에서도 기질요인중 활동수준, 반응역, 반응강도 기질에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요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기질과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져 왔다.

지금까지 초기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의 개인적인 변인인 기질과 초기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김미지, 2000; 김영희, 1996; 김혜수 1996)이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집 등 집단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영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아기에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초기적응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변인 중 중요한 변인인 영아의 기질이 어린이집에서의 초기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초기적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영아의 기질은 초기적응 뿐만 아니라 영아의 놀이성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탐색하며 놀이 활동을 수행한다. 영아는 특히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에 소비하기 때문에, 영아기의 놀이는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근본이며, 영아들이 최초로 직면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의 놀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아가 놀이를 통해 얻는 결과보다 놀이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놀이성으로 유아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게 되었다(Barnett, 1991). 놀이성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을 성장시키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라고 학자들은 간주하고 있다( 김영

희, 1995; 박정옥, 김준희, 2000; 유인순, 1995; Barnett, 1991). 이러한 놀이성을 Lieberman(1965)이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놀이성으로 규명한 후 선행연구는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아의 기질은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Blevins, 1987). 유아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놀이라 하더라도 어떤 유아에게는 흥미로우나 다른 유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는 김용희(2000), 김형미(1998), 이은경(2002), 조선미(2000) 등의 연구에서 관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김영희(1995) 연구에서는 유아의 활동성과 정서성 기질은 놀이성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은옥(200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기질과 부정적인 놀이성이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기질과 놀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유아에게 국한되어있고 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 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아들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놀이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와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관에서의 초기적응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영아가 가정 밖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영아기의 기관에서의 초기적응이 영아의 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영아기의 놀이를 이해하고 기관에서의 놀이성 발달을 돕는데 유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개인적인 특성인 기질에 따른 기관에서의 초기 적응을 살펴보고,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 또한 초기적응과 놀이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기관적응 및 놀이성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만 2세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기질 : 영아가 외부적인 자극이나 기회, 기대, 요구에 대한 반응하며 환경을 영향을 중재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는 활동수준, 반응강도, 반응역, 접근-회피, 주의 분산도, 지구성이 있다.
- 2) 초기적응 : 영아가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보이는 행동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집 환경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는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적응이 있다.

3) 놀이성 : 사회·정서·인지·성격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놀이의 잠재적인 특성이며, 유아로 하여금 놀이를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동기이자 성향을 말한다 놀이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있다.

① 신체적 자발성 : 놀이할 때 신체기관간의 협응이 잘되고 유연성이 있으며, 민첩성 등 운동기능은 활동의 정도

② 사회적 자발성 : 자기가 속한 놀이 집단과의 협력성, 놀이에서의 주도성, 나누기, 다른 유아와의 접촉 정도 등 다른 유아에 대한 반응과 주도권에 관한 것

③ 인지적 자발성 : 놀이에서 영아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정도이며, 다른 성격의 역할이나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또는 놀이에서 독특한 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것

④ 즐거움의 표현 : 영아들이 놀이 활동 중에 기쁨이나, 열성, 성취에 관한 만족감, 독백, 미소, 과시 등의 표현정도

⑤ 유머감각 :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익살스러우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잘 웃는 정도

## II. 이론적 배경

### 1. 기질의 개념과 유형

기질이란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특성으로 개인차의 근원으로 간주되는데,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발달심리, 성격이론, 임상병리, 그리고 교육학 등 많은 분야에서 기질이 연구되어져 왔다(표미정, 1997). 그러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질의 개념이 달라지고 기질을 구성하는 본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질에 대한 공통된 개념 정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홍계옥, 1994). 지금까지 중요하게 논의된 기질개념에 대한 정의와 기질의 유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Thomas와 Chess(1997)에 의하면, 기질이란 외부적인 자극, 기회, 기대나 요구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다. 즉 기질은 환경의 영향을 중재하는 아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질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동에게 제시되는 환경은 기질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아동의 기질적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표현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는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아동들이지만 비슷한 기질을 가졌을 수도 있고,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아동이지만 서로 다른 기질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Buss와 Plomin(1987)은 기질에 있어서 생래성(生來性)을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으며, 환경에서 오는 변인이나 습득된 특성은 제외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Rothbart(1981)는 기질은 환경과의 연속적인 상호작용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격구조로 발달된다고 보며, ‘신생아적 성격’이라고 하였다.

기질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인 성격심리학적 접근

(Allport, 1961; Buss & Plomin, 1975; Cattell, 1950; Sheldon, 1942), 정서로서의 기질을 강조하는 개인차 연구 분야에서의 접근(Rothbart & Derrberry, 1981), 그리고 소아의학적 접근 또는 개별적인 접근(Thomas와 Chess, 1997)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기질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은 성격구조의 부분으로 기질을 설명하면서 Sheldon(1942), Cattell(1950), Allport(1961), 등에 의해서 체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기질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은 가장 보편적인 접근으로 Sheldon(1942)은 내장 긴장형(viscerotonia), 신체긴장형(somatotoni), 뇌 긴장형(cerebrotonia)의 3가지 기질 구성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신체유형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천희영, 1992).

Cattell(1950)은 성격을 복잡하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특성들의 구조로 보았으며, 표현양식에 따라 역동적 특성, 능력특성, 기질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역동적 특성은 목표로 향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흥미나 욕구 등을 의미하며, 능력특성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각 및 운동에 대한 개인차를 의미하고 기질 특성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과 같은 체질적인 면에 주로 관계되는 것으로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Allport(1961)는 기질은 한 개인의 특징이며 주로 유전적인 정서의 본질, 일반적인 기분상태, 기분의 변동, 습관적인 반응의 강도와 속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Buss와 Plomin은 ‘성격발달에 관한 기질 이론(1975)에서 유아의 기질을 보다 생물학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즉 기질은 유전적 성격특질(genic inheritance)로 매우 안정성을 가지며, 유전된 기질적 특질은 행동을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기 보다는 행동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기질개념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의 네 가지 특성으로 보았으나 기질의 유전성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충동성을 제외시켜 나머지 세 개의 차원을 중심으로 기질 이론을 수정하였다(위영희, 1994). 이 중 정서성은 유아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하며, 울음, 공포, 분노 반응은 정서성 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였다. 활동성은 유아의 일상 활동의 강도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성은 유아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성격심리학적 접근은 기질성 성격의 일부분으로 특히 생리학적, 유전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비교적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보았다.

둘째, 개인차 연구의 접근에서는 기질은 일차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성에서의 개인차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차연구의 접근에서 유아간의 개인차를 보이는 가장 놀라운 방식 중의 하나가 각성이라고 보았는데 유아기의 각성과 관련하여 기질을 정서적 용어로 정의한 대표적 학자는 Goldsmith와 Camoos(1982, 1986)이다. 그들은 기질을 심리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정서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보았으며, 정서의 조직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조직화된 행동유형으로 나타나며, 양육자가 쉽게 유아를 예언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기질의 구성차원을 목록화하지는 않았지만 분노, 두려움, 즐거움, 흥미-접근, 운동적 활동 등의 기질 차원에 관심을 가졌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 역시 기질에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기질의 기본과정은 반응성과 자기조절로서, 기질이란 기본과정에서의 구성적인 개인차라고 정의하였다. 구성적이라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 비교적 지속적인 생물학적 특성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성숙,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응성의 경로는 운동 활동, 미소와 웃음, 두려움, 고통, 좌절 등이 있으며, 자기조절은 반응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agan(1984)는 과학자들에게서 연구되어진 기질의 특성들이 객관적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Thomas와 Chess(1997)의 연구가 미국도시의 중산층 부모들을 면접하여 그들이 유아들에 대하여 묘사한 것을 기록하였으므로 연구자들이 선택한 차원들은 부분적으로 부모들이 관심 있는 특징에 기초하고 있어 이러한 묘사들은 관찰자의 관심과 언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정은, 2005 재인용).

셋째, 소아의학적 접근 또는 개별적 접근은 Thomas와 Chess(199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Thomas와 Chess는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은 뉴욕중단연구를 통하여 기질은 성격의 유형적 특질로서 행동의 동기나 내용보다는 실제 행동이 수행되는 일관된 패턴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질은 원인론이나 불변론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Thomas와 Chess는 기질을 생후 2~3개월부터 확인할 수 있는 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 지구성, 주의 분산도 등의 9가지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Thomas와 Chess 및 Birch는 9가지 기질 하위범주에 근거하여 유아기에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영아기 때부터 정상적인 유아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기질의 구성차원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 간의 공통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질의 구성요인을 살펴볼 때 기질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하위구성 차원에 기초하여 기질의 조작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다. Rothbart와 Derryberry의 개인차 접근과 Thomas와 Chess의 개별적 접근, Buss 와 Plomin 성격심리학적 접근 세 가지 접근방법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자별 기질의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기질의 구성요인

기질연구자	기질의 구성차원
Thomas & Chess (197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동수준 (activity level)</li> <li>2. 반응강도 (intensity of reaction)</li> <li>3. 반응역 (threshold of responsiveness)</li> <li>4. 기분 (mood)</li> <li>5. 적응성 (adaptability)</li> <li>6. 접근-회피 (approach-withdrawal)</li> <li>7. 주의 분산도 (distractibility)</li> <li>8. 지구성 (persistence)</li> <li>9. 규칙성 (rhythmicity)</li> </ol>
Buss & Plomin (197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서성 (emotionality : distress ⇒ fear ⇒ anger)</li> <li>2. 활동성 (activity)</li> <li>3. 사회성 (sociability)</li> <li>4. 충동성 (impulsivity)</li> </ol>
Rothbart & Derryberry (198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동수준 (activity level)</li> <li>2. 미소와 웃음 (smiling and laughter)</li> <li>3. 두려움 (fear)</li> <li>4. 제한에 대한 통제감 (distress to limitation)</li> <li>5. 지향지속 (duration of orienting)</li> <li>6. 진정성 (soothability)</li> </ol>

국내에서의 기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최영희(1990)는 기질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그 동안의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유형분류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는데, 6개월, 13개월, 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Fullart, Catey와 MeDevitt(1984)가 제작한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로 아동의 기질을 연구하였다. 기질차원을 5가지 즉 규칙성, 접근-철회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으로 나누고 기질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순한 기질, 중간기질, 까다로운 기질 등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천희영(1992)은 기질이란 심리 생물학적 특질을 외형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였다. Thomas와 Chess(1977)의 PTQ와 Carey(1978)의 RITQ와 어머니의 면접을 참고로 하여서 우리나라 만 3세에서 7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는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개발하였고, 기질을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차원을 근거로 조절형, 소극적 조절형, 조절 결함형으로 기질을 유형화하고 33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밖에도 아동의 기질유형을 분류한 여러 연구는 Thomas와 Chess(1977)의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나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서수경, 1992; 원영미, 1989), 위영희(1994)는 Rothbart(1982)의 IBQ(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기질차원을 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철회,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의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장재숙(1997)은 기질을 활동성, 적응성, 반응성, 정서성, 접근-회피성, 주의 전환성, 생리적 규칙성 7세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박은영(2000)은 기질을 활동수준, 접근-회피, 반응강도, 지구성, 주의분산도, 반응역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 2. 초기 기관적응

### 1) 영·유아의 초기 기관적응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가정 외의 장소에서 양육을 받는 영아들은 부모와 떨어져 처음으로 낯선 외적인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Piaget(1974)는 어떤 생물체든 중 특유의 유기체적 발달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유전인자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적응이란, 환경의 요구에 자신을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자신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명확히 고려하여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창조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오종은, 2001, 재인용).

Bronfenbrenner(1994)의하면 영아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면한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관한 반응성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영아의 반응은 출생과 함께 부모, 형제, 친척등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현재의 상황적 맥락도 포함하게 된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영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영아와 가정 밖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반응하여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적응이란 자아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주는 능력을 말하며,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적응이란 각 개인이 주된 환경과의 조화있는 관계를 이룩하는 것으로서 기능적이거나 학습화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참여하여 적응

할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위해 환경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원영미, 1990). 따라서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가정외의 장소에서 양육 받는 영아들은 부모와 떨어져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익숙치않고 낯설은 영유아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적응상의 곤란은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이후 연계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가정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 처음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과의 초기적응은 영아의 이후 경험하게 되는 여러 보육서비스 또한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기는 일반적으로 감수성과 모방성이 강해서 환경의 영향과 물리적 영향보다는 인적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 보육교사의 영향이 보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전반에 걸쳐 90%를 차지하고, 아동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ildebrand, 1981).

영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전인적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 하느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영아가 어린이집 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보호자와 지속적인 격리를 경험하며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 까지는 많은 내적, 외적 갈등과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윤주화, 1998;

Lieberman, 1993)과 초기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에 관한 연구들(Field, 1989)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초기 적응 시에 영아의 어려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Lieberman(1993)은 생후 12~30개월경에 충동조절능력과 환경탐색 능력이 확장되면서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게 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와 기존의 심리적 안전기반인 어머니 또는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상반된 욕구를 지니는 것을 영아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주화(1998)는 어린이집 재원 후 6개월이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문제행동을 관찰하였다. 이 영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격적인 행동이 가장 많았고, 반항적 행동, 미성숙행동, 정서 불안행동, 위축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것은 학기 초 적응기간 보다는 그 빈도가 많이 감소된 수치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영아들이 초기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초기적응 과정에서 영아가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불안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영아의 불안 행동은 등원 시에 보호자와 격리될 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Field(1996)는 영아의 연령과 성에 따라서 등원 시 보이는 불안증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더 강한 불안을 보였으며, 15개월 ~ 24개월 영아가 가장 심한 불안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적응시의 영아가 연령과 성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임을 추측하게 한다.

Fox와 Field(1996)는 0~2세 때 처음 유아원에 들어온 영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아원 생활을 시작한 첫 주에 영아들의 수면장애가 늘었으며, 불안은 수면장애와 함께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1개월 된 영아는 유아원에서 낮잠을 잘 때 특히 많이 울었으며 유아원 생활 후 2주 후에 덜 울먹이며 덜 보채면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영아가 낮잠시간에 편하게 수면을 취하느냐 불안해하느냐가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판단에 있어 효과적인 근거임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오종은, 2001, 재인용)

Lieberman(1993)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영아의 기질, 연령, 건강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물론 부모와 영아 간 애착의 질, 부모의 직업만족도 등과 같은 부모의 특성, 보육교사의 특성 및 환경특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요인을 지적하였다(박성미·이지희·김정신, 1996 재인용). 또한 Zajdeman과 Minnes(1991)는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2~60개월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기관의 질을 중다 회귀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가 인식한 아동기의 기질이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원영미, 1990, 재인용).

## 2) 기질과 초기적응

영·유아의 기질과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져 왔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로서 특정한 준거에 근거를 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희선, 1994).

Klein(1982)의 연구에서는 기질변인 중 낮은 적응성이 유치원에서의 부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활동성이 유아원과 집단탁아에서의 부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Carey 와 McDevitt(1977)의 유치원 유아와 1학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적응성과 낮은 지속성, 낮은 활동수준이 집단생활의 적응을 예견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Parker-Cohen과 Bell(1988)의 연구에서는 높은 활동성 및 적응성을 지닌 유아들이 유아원과 집단탁아소에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여 집단에서의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으며, Garrison, Earls와 Kindlon(1984)에 의하면 기질특성 중에서 높은 지속력, 반응과 낮은 리듬성은 학교 입학시 부적응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원영미(1990)는 유아의 기질, 모친의 양육태도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질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만 3세 이상 유아의 기질과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와 순한 기질의 유아는 유치원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기질범주중 반응역, 반응강도, 접근성, 적응성, 기분상태, 주의전환성이 유아의 적응과 상관을 보이며,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유아들은 반응이 높고 강렬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회피적이고, 적응성이 낮고, 부정적 기분을 자주 나타내며 주위자극으로부터 쉽게 이탈된다고 볼 수 있었다.

박일현(1994)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기질 및 적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에 따라 적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순한 기질의 유아보다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적응을 잘 못하는 유아들은 반응력이 높고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희선(1994)은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의 적응간의 관계 연구에서 유아의 유치원 적응을 가장 잘 예견해주는 기질구성차원의 변인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적응성, 활동성 및 정서성과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적응성이라 하였다. 김영희(1996)와 김정미(1998)의 연구에서도 높은 적응성과 지속성은 집단생활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영미(1996)는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유아의 기질과 적응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 이들 변인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있으나, 활동성과 달랠 수 있는 정도보다는 사회성과 정서성, 주의집중 하위영역이 유아의 적응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영미(2003)의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과 반응역기질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반응강도 기질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또래관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진아(2004)의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 중 반응강도가 초기기관적응에 있어서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설명력 또한 20.8%, 25.4%라고 밝히고 있어 영아의 기질과 초기기관적응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기질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이 유아에 관한 것, 특히 유치원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것일 뿐 영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 3. 놀이성

#### 1) 영·유아의 놀이성

놀이는 영유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아가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새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놀이를 통해 학습방법을 익히기도 한다.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놀이가 자연스러운 내적발현이고, 놀이가 매개가 되어서 영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표현하고 자기조절과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며 점차 또래와의 놀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조심스럽게 형성시켜 나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놀이의 중요성과 원리는 Froebel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강조되고 있는데, 놀이의 내적동기에 의한 자연성과 욕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Froebel은 그의 저서인 ‘인간교육’에서 놀이가 어린이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생활 전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인간성장의 기본요소이며,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발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며, 놀이자체가 교육이라고 인식하였다(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 1993). Dewey는 놀이란 아동의 자연성의 발로이며, 아동의 의식 및 활동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보았고(이영석, 1993; 재인용), Vygotsky(1976)는 놀이는 어떤 욕구나 동기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최근 유아의 놀이에 대한 견해는 놀이의 개념의 다면화와 놀이를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유아가 놀이를 통해 얻는 결과보다는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놀이성(playfulness)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놀이성의 개념은 Lieberman(1965)이 제안하였는데, 사회·정서·인지·성격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놀이의 잠재적인 특성이며, 유아로 하여금 놀이를 최대한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동기이자 성향을 말한다(Melamed, 1985, 재인용).

놀이성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놀이성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그 중요성이 논의되어가면서 학자들의 관심은 놀이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진 측정도구를 가지고 놀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모아졌다(Rogers, 1988).

Lieberman(1965)은 놀이성(playfulness)을 놀이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놀이의 질과 양식이라고 말하고, 놀이성 평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놀이성 평정척도에서 나타난 놀이성의 요소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라고 명명하였다. 신체적 자발성이란, 놀이활동 중에서 신체 각 부분간의 협응 정도와 유연성, 민첩성 등 운동기능 활동의 정도에 기초를 둔다. 사회적 자발성이란 자기가 속한 놀이 집단과의 협력성, 놀이성에의 주도성, 나누기, 다른 유아들과의 접촉정도 등 다른 유아에 대한 반응과 주도권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이란, 놀이에서 유아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정도이며, 다른 성격의 역할이나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또는 놀이에

독특한 것을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색적 행동과 놀이간의 관련성에 있다.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러한 행동이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친숙함, 분명함, 단순함, 복잡성은 탐색적 행동의 결과가 된다. 유아는 놀이를 함으로써 신기한 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꾸고,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거나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조작하면서 사고의 틀을 넓히게 된다. 이와 같이 넓혀진 사고의 틀은 다시 순환되어 놀이에 재현되어서 놀이성에 반영되는 것이다(유애열, 1994).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들이 놀이 활동 중에 기쁨이나 즐거움, 열성, 성취에 대한 만족감, 독백, 미소, 과시 등의 표현 정도이다. 즐거움의 표현은 정서와 관련된 놀이성이며, 친숙함과 신기함이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동성으로는 기능적 즐거움과 반복강박이 나타나는데, 신기함이 편안함과 친숙함으로 숙달될 때까지 어떤 활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미숙, 2001). 즉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를 신기함에서 시작하고 숙달되어가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 열정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머감각은 놀이하는 사람에게 행복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한다. 유아들이 집중해서 놀이할 때 관찰하여 보면, 유아들이 심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집중력과 삶에 대한 진지함인 동시에 늘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이며 즐거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vine, 1967). 때문에 유머감각은 유아의 생활에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유아에게 있어서 유머감각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놀이성인 것이다.

김영희(1995)는 Barnett(1990)의 CPS(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성을 측정하였다. Barnett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비슷한 유형들을 발견하여 그 비슷한 유형들을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 유아의 놀이 유형을 적극적 놀이형, 소극적 놀이형, 자발적 놀이형으로 구분하였다. 엄미랑(1995)의 연구에서도 놀이성에 대한 문헌고찰과 기존의 놀이척도, 유아교육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놀이성 척도를 만든후, 유치원 현장을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유아의 놀이성은 적극성 및 주도성, 규칙성, 상징성, 놀잇감과 상호작용, 놀이의 사회적 형태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Lieberman(1965)에 의해 밝혀진 다섯 가지 요인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Lieberman의 구성 요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Lieberman의 사회적 자발성은 엄미랑의 상징성, 놀잇감과 상호 작용성, 상상성과 일치하였고,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은 적극성 및 주도성과 상상성의 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놀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의견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놀이성이 모든 유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 신뢰 록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 2) 기질과 놀이성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놀이가 교육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가 유아의 고유한 성향인 기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의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놀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놀이를 통해서 유아를 교육하고 상담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계

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관심에 비해 기질과 놀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성과 기질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Blevins, 1987)는 기질 중에서 지속성과 기분의 질은 놀이성에 대한 어머니의 평정과 관련이 있었고, 아버지의 평정에서는 지속성, 접근성, 적응력이 놀이성에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Barnett(1991)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 연령, 출생순위 기질 등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 성격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인지적으로 자발적이며, 유머감각에 있어서도 어린 연령의 유아에 비해 높은 성향을 나타냄을 밝혀냈다. 또한 Singer와 Rummo(1973)의 연구에서도 52개월에서 77개월의 중류층 유아 79명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창의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창의성 수준에 상관없이 여아들은 덜 개방적이며 덜 표현적이며, 자아신포가 낮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남아들은 더욱 개방적이고 많은 놀이를 좋아하며 표현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장은영, 2001).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용희(1991)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영역 선택 및 놀이형태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영역 및 놀이형태를 연구하였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수지(1996)는 아동의 기질과 놀이실에서의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놀이실에서 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순한 기질의 아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하였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자주 하였으며, 반응이 느린 기질

의 아동은 또래가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형미(1998)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실외놀이 형태를 조사하였는데, 유아의 기질이 놀이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특히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집단-극화놀이를 선호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방관자적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또한 순한 기질의 유아가 놀이유형 중 쫓기 놀이를 즐긴다고 하였다. 이지현(1998)은 유아의 기질 및 성에 따른 놀이행동 연구에서 기질에 따라 놀이영역 선택에는 차이가 있으며, 순한 기질은 연합놀이와 협동놀이를 많이 하는 반면에 까다로운 유아는 방관행동, 혼자놀이를 많이 함을 보여주는 등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김형미(2000)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실외놀이형태 연구에서 기질의 활동성과 놀이에서의 비참여 행동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반응강도와 씨름놀이, 주의 전환성과 쫓기 게임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기질유형에 따라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극화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방관자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미(2000)는 기질에 따른 유아의 놀이스타일 연구에서 기질에 따라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주도적인 놀이스타일이 적게 나타나는 등의 기질에 따른 놀이스타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권지연(2002)은 유아의 개인적 변인으로서의 성격과 놀이스타일을 연구하였는데, 독립적인 유아들은 주도적인 놀이 스타일을, 의존적인 유아들이 추종적인 놀이 스타일을 보이고, 또 외향적인 성격의 유아들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놀이 스타일을 유지하며 놀이 과정에서 놀이의 정의와 제안 기리

고 거절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이은경(2003)의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질유형에 따라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사회적·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순한 기질의 유아는 사회적·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놀이성이 높고 놀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놀이의 시작시기인 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 만 2세 영아(37개월 미만) 4학급 4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다닌 지 3주된 만 2세 영아들이다.

연구대상 영아들이 다니는 A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써, 해당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A어린이집의 원아수는 총150명이며 교사수는 21명이다. 연령별로의 구성을 살펴보면 만 1세 영아12명, 1개반 교사 3명, 만 2세 영아 50명 4개반 교사8명, 만 3세 유아 50명 세 개반 교사 6명, 만 4세반 38명 2개반 교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A어린이집 만 2세 영아반의 하루 일과는 표2와 같다.

<표 2> A어린이집 만 2세 영아반의 하루일과

시 간	활 동 내 용
8:00~9:00	등원, 인사하기, 옷 정리하기, 자유선택활동
9:00~9:30	손씻기 및 오전간식
9:30~10:30	자유선택활동
10:30~10:40	정리정돈
10:40~11:30	대, 소집단 활동
11:30~11:40	점심준비
11:40~12:40	점심/ 이담기 / 조용한 놀이
12:40~15:00	낮잠 및 휴식
15:00~15:30	낮잠정리/ 손씻기/ 간식준비

15:30~16:30	오후간식
16:30~17:00	자유선택활동
17:00~17:30	평가 및 귀가지도
17:30~18:00	개별귀가

연구대상영아의 일반적 배경은 표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1 (45.6)	모학력	고졸	6 (13)
				초대졸	4 (8.7)
	여자	25 (54.4)		대졸	28 (60.9)
				대원학이상	8 (17.4)
	계	46 (100.0)		계	46 (100)
월령	26~28개월	15 (33.2)	모직업	간호사	23 (51.1)
	29~31개월	12 (26.6)		의사	4 (8.7)
	32~34개월	9 (20.0)		회사원	5 (11.1)
	35~37개월	10 (22.2)		기타	14 (31.1)
	계	46 (100)		계	46 (100)
출생순위	첫째	32 (71.1)	주거형태	자가	22 (48.9)
	둘째	13 (28.7)		전세	22 (48.9)
	셋째이상	1 (2.2)		기타	1 (2.2)
	계	46 (100%)		계	46 (100)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어머니용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영아의 초기적응 및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교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영아의 기질 검사도구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Fullard, Carey와 McDevitt(1984)가 제작한 영유아 기질 질문지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로 박은영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활동 수준 5문항, 접근-회피 9문항, 주의분산도 5문항, 반응강도 6문항, 지구성 5문항, 주의 산만도 5문항, 반응역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3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다.

- ① 활동수준(activity level): 목욕하기, 옷 입기와 같은 영유아기 일상 생활에서 보이는 신체활동량으로 높은 점수는 신체 움직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 ② 반응강도(intensity of reaction) : 긍정 및 부정적인 반응의 에너지 정도이며, 높은 점수는 반응표현이 격렬한 것을 의미한다.
- ③ 반응역(threshold of responsiveness): 영·유아에게 감각적 자극, 주위의 사물, 사회적 접촉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으로 높은 점수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접근-회피(approach or withdrawal): 새로운 음식, 장난감, 사람 등과 같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처음으로 보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

응형태이며 높은 점수는 회피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⑤ 주의 분산도(distractibility): 외부의 사태나 자극에 의해 진행 중인 활동이 쉽게 방해받거나 이탈하는 정도로 높은 점수는 쉽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⑥ 지구성(persistence):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의 지속시간과 방해를 받았을 때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의 정도로 높은 점수는 일을 계속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아기질에 관한 질문지는 해당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어머니가 “아주 그렇다”에서 “아주 그렇지 않다” 까지 4점 척도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6개 문항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27번 문항과 28번 문항이 신뢰도가 낮게 나와서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7번 문항과 28번 문항을 제외한 각 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  $\alpha$  값을 제시하면 다음 표4 와 같다.

<표 4> 영아의 기질 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성차원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활동수준	9,14,20,22,24	5	.70
접근-회피	(1), 7, 10,16, 18, 23,30, 35, 36	9	.76
반응강도	3, 6, 12, 13, 10, 29	6	.72
지구성	4, 11, 25, 31, 33	5	.62
주의 산만도	2, (15), 17, 21, 26	5	.64
반응역	(5), (8), (32), (34)	4	.61
전체		34	

\* ( )은 역채점 문항

## 2) 기관적응 검사도구

본연구에서는 Jewsuwan, Luster, Kostelink(1992)가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PAQ는 교실 내에서 영아의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아의 특정행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를 해당유아의 담임교사가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9개 문항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과 계수 Cronbach'  $\alpha$  값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초기적응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  .90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성차원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친사회적행동	1, 2, 3, 4	4	.77
긍정적 감정	5, 6, 7, 8, 9, (10), (11)	7	.77
또래관계	12, 13, 14, 15, 16, (17)	6	.61
자아강도	18, 19, 20, 21	4	.82
일반적응	22, 23, 24, 25, 26, (27), 28, 29	5	.80
전체		29	.90

## 3) 놀이성 검사도구

본연구에서는 영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이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 CPS(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번역하여 김영희(1995)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arnett의 CPS는 Lieberman(1965)에 의해 아동의 놀이성 하위변인

으로 밝혀진 5가지의 변인, 즉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 따른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인데 김영희(1995)가 우리나라 유아 실정에 맞게 사회적 자발성에 2문항을 추가하고, 문항 번안상의 오류를 고려하여 수정하고 각 하위척도별 문항 수준 및 내용을 바꾼 것이다. 만2세~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희의 놀이성 척도는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며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약간 그렇다’ , 3. 대체로 그렇다 ‘ ’ 4. 많이 그렇다 ‘,’ 5. 정말 그렇다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5개 문항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  $\alpha$  값을 제시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영아의 놀이성 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신체적 자발성	1-4	4	.82
사회적 자발성	5-9	5	.91
인지적 자발성	10-14, 20	6	.81
즐거움의 표현	15-19	5	.89
유머감각	21-25	5	.82
전체		25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 1) 교사훈련

2006년 3월 5일에 교사훈련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측정도구 문항 간 내용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예비조사

2006년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과 놀이성 관찰 측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자와 경력 5년 이상의 담임교사가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과 놀이성을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초기적응과 놀이성 측정자료의 일치도를 위하여 사전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만 2세 영아 4명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간의 신뢰도는 .90이었다.

#### 3) 본 조사

##### ① 영아의 기질 검사

영아의 기질에 관한 질문지는 교사를 통하여 영아들의 어머니에게 3월 16-17일 양일에 걸쳐 배부하였고, 3월 24일까지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100%였다.

##### ② 초기적응 검사

영아의 초기적응 검사는 3월 16-17일 양일에 걸쳐 영아들의 담임교사들이 초기적응 측정도구인 PAQ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 ③ 영아들의 놀이성 검사

영아들의 놀이성 검사는 3월 20-28일 자유놀이시간에 영아들의 담임교사들이 놀이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게 한 다음 Barnett(1990)이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 CPS(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번역하여 김영희(1995)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가 평정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 배경에서는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기질과 초기적응의 관계,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 초기적응과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의 기질에 따른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 1.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

영아의 기질과 기관에서의 초기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상관관계

초기적응 \ 기질	활동수준	접근 회피	반응 강도	지구성	주의 분산	반응역
친사회적 행동	-0.18	-0.17	-0.25*	-0.11	0.02	-0.02
긍정적감정	0.04	0.08	0.02	-0.19	0.13	-0.10
또래관계	-0.24	-0.27*	-0.17	-0.09	0.02	0.14
자아강도	0.39**	0.23	0.27*	0.04	-0.07	-0.06
일과적응	-0.01	0.03	-0.14	-0.22	0.01	-0.14
전체	0.01	-0.00	-0.07	-0.18	0.03	-0.07

\* $p < .1$ , \*\* $p < .05$

영아의 기질범주 중 활동수준은 초기기관적응의 자아강도( $r = .39, p < .05$ )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신체의 활동량이 많은 영아는 기관에 초기 적응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있으며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접근-회피기질은 초기적응의 또래관계( $r=-.27, p<.1$ )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회피하려는 성향이 많은 영아들이 또래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영아의 반응강도 기질은 초기적응의 친사회적 행동( $r=-.25, p<.1$ )와 부적상관관계가, 자아강도( $r=.27, p<.1$ )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영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은 적게 나타나고, 자심감이나 독립적인 성향은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성기질과 접근-회피기질, 반응역 기질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놀이성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간의 상관관계

놀이성	기질 활동수준	접근 회피	반응 강도	지구성	주의 분산	반응역
신체적 자발성	0.36**	0.15	0.16	0.00	-0.08	0.18
사회적 자발성	-0.62	0.00	-0.20	0.00	0.05	0.33**
인지적 자발성	0.16	0.14	0.09	0.15	-0.05	0.24
즐거움의 표현	0.19	0.05	0.14	0.05	-0.07	0.24
유머감각	0.26*	0.08	0.09	0.02	-0.17	0.32**
놀이성 전체	0.22	1.10	0.08	0.06	-0.08	0.30**

\*  $p<.1$ , \*\*  $p<.05$

영아의 기질범주에서 활동수준은 놀이성에서 신체적 자발성( $r=.36$ ,  $p<.05$ )와 유머감각( $r=.26$ ,  $p<.1$ )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수준이 높은 영아들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이 높으며, 또한 유머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회피기질, 반응강도기질, 지구성 기질, 주의분산 기질은 영아의 놀이성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역 기질은 놀이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 $r=.33$ ,  $p<.05$ ), 유머감각( $r=.32$ ,  $p<.05$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요인을 가진 영아들이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을 많이 보이며, 유머감각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응역 기질은 영아의 놀이성의 전체( $r=.30$ ,  $p<.05$ )와도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들의 놀이에 있어서 자극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

영아의 기관에서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영아의 초기적응이 놀이성 전체( $r=.36$ ,  $p<.05$ )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기관에서 초기적응을 잘하는 영아들이 놀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초기적응요인 중 친사회적행동은 놀이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 $r=.46$ ,  $p<.01$ )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초기적응시기에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영아들이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9>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간의 상관관계

놀이성	초기적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적응	초기적응
신체적 자발성	0.24	0.38***	0.11	0.43***	0.29**	0.39***
사회적 자발성	0.46**	0.42***	0.27*	0.12	0.30**	0.42***
인지적 자발성	0.18	0.35**	-0.11	0.39***	0.25*	0.29**
즐거움의 표현	0.08	0.34**	-0.06	0.44***	0.26*	0.29**
유머감각	0.13	0.24	-0.09	0.34**	0.11	0.19
놀이성	0.24	0.40***	0.00	0.42***	0.27*	0.36**

\*  $p < .1$ , \*\*  $p < .05$  \*\*\*  $p < .01$

긍정적인 감정은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 $r=.38, p<.01$ ), 사회적 자발성( $r=.42, p<.01$ ), 인지적 자발성( $r=.35, p<.05$ ), 즐거움의 표현( $r=.34, p<.05$ )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기적응시기에 긍정적 감정을 많이 표현한 영아들은 놀이시에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을 표현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관계는 놀이성 중에서 사회적 자발성( $r=.27, p<.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초기적응시기에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영아들은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강도는 놀이성 중에서 신체적 자발성( $r=.43, p<.01$ ), 인지적 자발성( $r=.39, p<.01$ ), 즐거움의 표현( $r=.44, p<.01$ ), 유머감각( $r=.34, p<.05$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초기적응 시에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영아들은 놀이 시에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 표현, 유머감각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일과적응은 놀이성 중에서 신체적 자발성( $r=.29, p<.05$ ), 사회적 자발성

( $r=.30$ ,  $p<.05$ ), 인지적 자발성( $r=.25$ ,  $p<.1$ ), 즐거움의 표현( $r=.34$ ,  $p<.05$ )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초기적응 시에 일과에 잘 적응하는 영아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을 표현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적응 요인에서 긍정적 감정과 자아강도, 일과적응요인은 놀이성 전체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적응 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그리고 일과에 잘 적응할수록 놀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이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과 놀이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 보육기관에서의 영아의 초기기관적응을 돕고, 적응 후에 놀이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초기기관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이 영아의 초기적응 중 자아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유치원 적응을 가장 잘 예견해 주는 기질구성차원의 변인은 교사가 지각한 적응성, 활동성 및 정서성과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적응성이라고 밝힌 이희선(199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영미(1996)의 연구에서는 활동성과 달랠 수 있는 정도보다는 사회성과 정서성, 주의집중의 하위영역이 유아의 적응과 보다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미경(2003)의 연구에서도 낮은 활동수준, 낮은 반응역, 높은 지구성을 지닌 영아가 초기적응을 잘한다고 밝혀 본 연구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영아의 기질요인 중 접근-회피기질은 초기적응의 또래관계와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접근-회피 기질은 자아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한 신현정(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신현정(2003)의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에서 초기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반응강도기질은 초기적응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강도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에 관한 위아 같은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영아의 기질변인과 초기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위의 연구들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영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놀이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성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신체적자발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행동이 활력을 보일 때 영아는 신체적 협응이 잘되고 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은옥(2002)과 유인순(2005)는 신체적 동작성을 많이 하는 유아의 특성은, 사회성과 활동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활동성이 영아의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자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은 영아는 놀이를 하면서 놀이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고 활기가 있기 때문에 영아의 신체적 자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영아의 정서성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유아는 신체적인 표현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 Fogle(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영아의 기질적 요인 중 반응수준과 반응역은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사회적 자발성에 영향을 주는 기질적 요인을 사회성과 정서성으로 밝히고 있는 유인순(2005)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인지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과 상관관계가 있는 영아의 기질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기질적 요인 중 활동수준과 반응역은 놀이성의 마지막하위변인인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최은아(2005)의 연구에서 활동성이 유머감과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지적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기질을 유형화한 것이 본 연구의 하위요인과 다르게 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법적인 차이의 영향을 추측하게 한다. 때문에 이것은 또한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대상이 유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영아의 기질적 요인들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영아의 초기적응 양상과 놀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결과에서 결과에서 영아의 초기적응은 영아의 놀이성 전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적응이 놀이성의 하위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초기적응요인 중 자아강도, 긍정적 감정, 일과적응은 놀이성의 하위요인에서 신체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초기적응요인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일과적응은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적응요인 중에서 긍정적 감정, 자아강도, 일과적응은 인지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초기적응요인 중에서 긍정적 감정, 자아강도, 일과적응

은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초기기관적응 요인 중 자아강도는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기관적응 변인 중 긍정적 감정은 놀이성에 있어서 유머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자아강도는 놀이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적응시에 긍정적 감정을 보이고,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추후에 긍정적인 놀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의 초기적응양상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초기적응의 변인들의 영아의 놀이성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영아의 초기적응양상이 추후놀이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영아의 초기기관적응과 놀이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초기적응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기질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이 초기적응에 있어서 자아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요인 중 접근-회피기질은 초기적응의 또래관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영아의 기질요인 중 반응강도는 초기적응의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자아강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기질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수준은 놀이성의 신체적자발성과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요인중 반응역은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 전체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면, 영아의 초기적응은 전체 놀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적응의 하위변인별로 놀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초기적응 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은 놀이에 있어서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또래관계는 사회적 자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자아강도는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적응 요인 중 일과적응은 놀이에 있어서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적응 요인 중에서 긍정적 감정과 자아강도, 일과적응 요인은 놀이성 전체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표집수가 적었고 한정된 지역의 영아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많은 표집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만 2세 영아로 한정하였다. 이는 연령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연령을 만 2세로 한정된 것으로 인하여 동일 연령에서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 최근의 초기적응 경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세미만의 영아들의 전반적인 초기적응과 놀이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0세, 만1세, 만2세 영아들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을 살펴보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초기적응과 놀이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을 척도화해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상이 영아이기 때문에 영아의 초기적응과 놀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제현장에서 영아의 초기적응상황과 놀이상황에 대한 기록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질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 관련이 있는 영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에서의 적응과 더불어 놀이성을 좀 더 발달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광웅·이미애(1995).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생활과학연구지 10**, 109-125
- 김미라(1994).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적응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숙(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지(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그들의 동일반 탁아기관에서의 적응**.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희(1998). **유치원교사, 부모, 유아의 놀이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1996). **아동의 기질과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유아학회지, 17(2)**, 19-31
- 김용희(1991).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영역 선택 및 놀이형태 -4세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미(1998).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지위 및 놀이성**. 충북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진아(2004).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적응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형미(1998).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실외놀이 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수(1996).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에서의 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영(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5), 29-41
- 박은영(2000). **영유아의 기질과 적응/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은정(1997). **어머니의 놀이개념과 유아의 놀이행동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일현(1994).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아기질 및 적응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경숙(1997).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수경(1990).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인자(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천안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중은(2001).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연세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우현경(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주화(1998).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동  
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모친의 양육태도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  
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학 연구, 27(2), 63-80
- 이숙재(1997). **유아를 위한 놀이 이론과 실제**. 개정 증보판. 서울:창지사
- 이은경(2002).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현(1998). **유아의 기질 및 성에 따른 놀이행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혜은(2005).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및 어머니의 놀이 참여 수준과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희선(1994).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5(2), 117-128
- 장은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의 유아의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재숙(1997). **유아의 기질과 교사의 기질요구도와의 적합성이 유아의 유치  
원 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미경(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영미(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선미(2000). **기질에 따른 유아의 놀이스타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천희영(1992).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학회지**, **14(2)**, 17-34
- 표미정(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유아교육학회(1997). 유아교육사전(용어편). 서울:한국사전연구사
- 현온강,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personality*.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benefit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 Barnett, L. A., & Kieber, D. A. (1982). Concomitants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abilities and gende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1*, 115-127.
- Blennow, P. I., & McNeil, F. T. (1980). Questionnaire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one- and two-year old childre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37-46.
- Blevins, T. (1987). *Dispositions of play : Correlates of tempera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al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Bronfenbrenner, U.(1994). *Human and ecology : Concepts and*

- perspectives.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 가정학, 연세대학창립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3-28.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uss, A. H., & Plomin, R. (1986).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mpos, J. J., & Goldsmith, H. H. (1982) Genetic Influence on individual difference in emotionalit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99-107.
- Caplan, R. J. (2000). Assessment of nonsocial play in early childhood. In K. Gitlin-Weiner, A. Stalker, & C. Schaefer(Eds.),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563-598. John Wiley and Sons.
- Carey, W. B., & McDevitt, S. C.(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245-253.
- Cohen, D. A., Silver, D. H., Cowan, C. O., Cowan, P. A., & Person, J. (1992).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13*(4), 432-449.
- Derryberry, D., & Rothbart, K. M.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temperament. In E. M. Lamb & A. L. Brown (Eds.), *Advance in development psychology* 334-345.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Fogel, L. (2003). *Parent belief about play: Relations with*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s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 Fox, N. A., & Field, T.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school entry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9*, 211-216
- Goldsmith, H. H., & Gottesman, T. (1981). Origins of Variation in behavior style: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young twins, *Child Development, 58*, 91-103.
- Goldsmith, H. H.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 Four approaches. *Child , 58*, 505-29.
- Klein, B. L., & Forst, J. L. (1979). *Children's play & playgrounds.* Boston: Allyn & Bacon.
- Levine, H., & Wardwell, E. (1967). *The research uses of doll play.* In R. E. Herron & B. Sutton-Smith(Eds.), *Child's play* 145-184. New York: John Wiley & Sons.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Pe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iaget, J. (1962). *Pal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 Y.: W. W. Norton.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 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 Rost, H. (1986). Explanation and play: A micro-analysis. In R. Van der Kooy & J. Hellendoorn(Eds.), *Play, play-therapy and research*. Lisse : Swets & Zeitlinger.
- Rothbart, M. K., & Derryberry, D.(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temperament*. TY: New York University Press.
- Singer, D. G., & Rummo, J.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4.

<부록1> 기질측정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영아의 기질과 영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초기적응 및 놀이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응답은 영아를 이해하고 연구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영아들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 최기적응 후의 놀이행동을 돕는 기초 자료가 되오니 정성껏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의견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바쁘신 중에도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나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 이문옥 교수님

연구자 : 송혜진(016-371-2627)

\* 다음 문항들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0표 하시거나 답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 : 남( ) 여( )
2. 자녀의 이름 :
3. 자녀의 형제관계 : ( )남 ( )녀 중 ( )번째 아이
4. 자녀의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5. 어머니의 연령 : 만( )세
6.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졸( ), 고졸( ), 초대졸( ), 대졸( ), 대학원 졸( )
7. 어머니의 직업 :
8. 가정의 한달 평균수입 : ( )만원
9.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다음의 문항들은 자녀의 행동특징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귀 자녀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세기 바랍니다.

문항	아주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1. 의사에게 처음 가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				
2. 놀고 있는 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노는 것을 계속한다.				
3. 하던 일이 안되면 크게 울거나 발을 구른다.				
4.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10분 이상 계속해서 논다.				
5. 음식이 뜨겁거나 차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6. 칭찬해주면 큰소리로 웃거나 좋아서 팔짝팔짝 뛰다.				
7. 처음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장난을 친다.				
8. 아이가 먹던 것과 다른 상표의 우유를 주거나 먹던 것과 다른 종류의 음료수를 주어도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9. 낯선 장소에 처음 갔을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낯선 것을 만져보거나 올라타거나 한다.				
10. 처음 보는 어른과 잘 논다.				
11. 그림책을 10분 이상 앉아서 본다.				
12.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13. 배가 부를 때 음식을 더 주면 음식을 뱉거나 입을 꼭 다물거나 손가락을 손으로 밀쳐낸다.				
14.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감을 세게 치거나 던지면서 논다.				
15.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다.				
16.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17.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초인종이 울려도 보던 그림책을 계속해서 본다.				
18. 처음 보는 어른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체를 한다.				
19.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20. 앉아서 하는 놀이보다 달리거나 뛰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				

문항	아주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21.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몇 번씩 불러야 대답을 한다.				
22. 집 안이나 집 밖에서 주로 뛰어다닌다.				
23. 처음 보는 어른과도 잘 나간다.				
24. 엄마 아빠와 걸어갈 때 엄마 아빠보다 앞서서 뛰어간다.				
25. 놀이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과자를 먹고 나서 다시 먼저 하던 놀이를 한다.				
26. 밖에서 갑작스런 소리가 나도 하던 놀이를 계속한다.				
27. 옷이나 몸이 더러워져도 개의치 않는다.				
28. 옷을 입거나 장난감 치우는 일을 5분 이상 계속한다.				
29. 심하게 울 때는 팔을 휘젓거나 발을 구르며 몸을 흔든다.				
30. 집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서면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가까이 간다.				
31. 처음 보는 물건을 5분 이상 자세히 살펴본다.				
32. 기분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냄새(음식 냄새나 화장실 냄새)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33. 공 던지기, 집짓기 또는 그림 그리기 같은 일을 10분 이상 계속한다.				
34.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나 물기가 바뀌어도 알아채지 못한다.				
35. 부모가 옆에 있더라도 남의 자동차에 앉으면 불안해 한다.				
36. 낯선 집이나 가게에 가도 10분 이내에 곧 익숙해진다.				

\*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놀이성 측정관찰기록지

영아의 놀이성 측정관찰기록지

반 : \_\_\_\_\_ 어린이 이름 :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2	3	4	5

	문항	1	2	3	4	5
1	놀이 활동을 할 때 신체기관간의 협응이 잘 된다.					
2	놀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인다.					
3	놀이를 할 때 정적인 것 보다는 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4	놀이를 할 때 많이 움직인다.					
5	놀이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의 접근에 쉽게 반응한다.					
6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으로 놀이한다.					
7	다른 아이들과 놀잇감들을 나누어 함께 놀이한다.					
8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9	친구를 쉽게 사귀다.					
10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이다.					
11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리더 역할을 하려한다.					
12	자기의 독특한 놀이방법을 만들어 낸다.					
13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물건(사물)들을 사용한다.					
14	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성격의 역할들을 하고자한다.					
15	놀이를 하는 동안 한 활동만 고집하지 않고 활동을 바꾸어 가며 놀이한다.					
16	놀이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17	놀이하는 동안 기운차 보인다.					
18	놀이에 열중한다.					
19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한다.					
20	놀이를 하면서 노래 부르거나 이야기한다.					
21	다른 아이들과 우스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22	놀이를 할 때 장난기가 많다.					
2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잘 웃는다.					
24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잘 웃는다.					
25	놀이를 할 때 익살부리기를 좋아한다.					

<부록3>기관적응 질문지

기관적응 질문지

반 : \_\_\_\_\_ 어린이 이름 :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2	3	4	5

번호	문항	1	2	3	4	5
1	친구나 선생님을 도와준다.					
2	장난감 등을 나누어 쓴다.					
3	친구나 선생님이 기분나빠할 때 관심을 표현한다.					
4	차례를 지킨다.					
5	활기있다.					
6	친절하다.					
7	편안해보인다.					
8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9	자기의 의사를 몸짓이나 말로 표현한다.					
10	놀잇감 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1	잘운다.					
12	대체로 친구들과 잘 지낸다.					
13	다른 아이가 진행중인 활동에 건설적으로 개입한다.					
14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이하거나 교대로 갖고논다.					
15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인다.					
16	다른 아이의 놀잇감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17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공격을 한다.					
18	자신감이 있다.					
19	독립적으로 탐색한다.					
20	자기 주장을 한다.					
21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22	보호자와 잘 헤어진다. (헤어질 때는 울지만 곧 진정한다.)					
23	하루일과를 이해함을 알 수 있다.					
24	일과시간에 대체로 교사에게 협조적이다.					
25	식사, 낮잠의 양과 시간이 규칙적이다.					
26	낮잠을 잘 때 울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27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불안해한다. (예 : 장소이동, 낯선 성인의 등장 등)					
28	보호자와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한다.					
29	적절하게 교사의 관심이나 도움을 구한다.					

30. 종합적으로 \_\_\_\_\_ 다른 아이에 비해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충분하게 (2) 기대한 것 보다 조금 (3) 기대한 만큼 (4) 기대 보다 잘 (5) 매우 잘

## **ABSTRACT**

###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Daycare–Center Early Adjustment and Playfulness in Infants at Western Age 2**

**Song, Hye–Ji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Daycare–Center Early Adjustment  
and Playfulness in Infants at Western Age 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temperament, daycare–center early adjustment and playfulness of two– year–olds in Western age.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below:

1. What is the relationship of temperament to early adjustment in infants who are at the Western age of 2?
2. What is the relationship of temperament to playfulness in infants who are at the Western age of 2?

3. What is the relationship of early adjustment to playfulness in infants who are at the Western age of 2?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6 infants who were two years old in Western age and attended A daycare center in Seoul.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May 2006.

One instrument used in the study was questionnaires for mothers that covered infant temperament, and the other was questionnaires for teachers that assessed the early adjustment and playfulness of infants. For data handling,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to grasp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infants, and correlational analysis was implement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about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below:

First, regarding connections between the subfactors of the infants' temperament and those of their early adjustment, activity level that was one of temperament subfact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ego strength that was one of early adjustment subfactors, and approach-avoidance tendency that was part of tempera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peer relationship, part of early adjustment. Reaction strength that was part of tempera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but positively to ego strength, which belonged both to the early adjustment category.

Second,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variables of their temperament and those of their playfulness, activity level that belonged to tempera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physical spontaneity and a sense of humor that belonged to playfulness. Threshold of responsiveness that was part of tempera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ocial spontaneity and a sense of humor, and tha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overall playfulness as well.

Thir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of their early adjustment to playfulness, early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overall playfulness. As to the relationship of the subfactors of the two, prosocial behavior that belonged to early adjust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social spontaneity that was part of playfulness, and positive feeling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physical spontaneity, soci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and expression of delight. Peer relationship that was part of early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ocial spontaneity, and ego strength that was one of

early adjustment subfact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physic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expression of delight and a sense of humor. Daily-schedule adjustment that was part of early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physic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social spontaneity and expression of delight that belonged to playfulness. And positive feelings, ego strength and daily-schedule adjustment that were all part of early adjust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overall playfulness.